

신년 인터뷰

“불굴의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건설산업의 희망찬 미래를”

- 기사년 새해, 뚝심의 저력으로 모든 난관 극복하며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

지난해 건설산업은 해외건설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에 회장님께서도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일들을 수행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을 수행해 오셨는지요?

회장으로 취임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두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간 저는 침체된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국회 등 관계 요리에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설명 드리고 정책 건의를 하는 등 나름대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정부도 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지난해 5·10대책과 9·10대책 등 수차에 걸쳐 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그동안의 대책을 통해 PF 정상화뱅크 운영, P-CBO 발행, 대주단협약 연장 등 금융 지원,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및 투기 과열지구 해제,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등을 통한 주택 공급 여건 개선 및 공모형 PF 사업의 정상화 지원이 있었으며, 9·10대책에서는 일시적이거나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등 핵심적인 세제 지원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2년 간 유예하고, 당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올해 SOC 예산도 다소나마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 상품 다양화 및 신시장 개발 등 건설업계의 성장 동력 확충과 새로운 발전 방향 제시, 우리 건설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건설 주체들과 함께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건설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어려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국내 경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경제 부문별 투자가 감소하는 침체 국면이 지속되었으며, 건설투자 역시 위축되어 건설 수요는 급감한 데 비해 업체 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업체간 수주 경쟁은 심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속화되고 있는 건설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건설시장은 현재 성숙기로 접어들어 능동적 수요 창출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건설산업은 과거 정부 주도 경제개발 시대의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에서 과감히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입찰,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잘못된 관행들로 인해 건설산업에 대한 배타적인 시각들이 팽배하게 된 것도 건설 투자 위축과 건설·부동산 규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0년대 중반부터 많은 건설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경영보다는 주택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믿고 PF 사업에 뛰어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유동성 부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와 같은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는 우리 건설산업이 과거의 성장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성숙기에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성장통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업계는 이러한 냉혹한 현실과 시장의 트렌드를 직시하고 과감한 혁신 경영과 내실 경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기업별로 전문화되고 특화된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께 다가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됨에 따라 올 2월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에 사상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는 더욱 더 새 정부에 많은 기대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산업은 IMF 시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IMF 사태 때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과 건설산업의 역할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정부와 정치권 및 많은 국민들이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건설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우리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신년 인터뷰

때보다도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분양 주택을 공급하며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취득세 감면 시한 연장과 양도세 증과 폐지 등 거래 활성화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유동성 악화로 내년에는 더 많은 업체들이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만큼 PF 사업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둘째, 새 정부의 건설 정책은 '건설산업은 기술산업'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지나친 가격 위주의 산업 정책으로 인해 오늘날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은 공사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격 위주의 입찰제도 중에서 건설공사 채산성 악화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지금 2년 유예된 상태에서 1년 후에는 다시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업계 입장을 새 정부가 적극 수용하여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한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등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서민들에게는 일자리 제공이 곧 복지 확대이며, 건설 투자가 어느 산업보다 높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정책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 중·저 소득층 노후 불량 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홍수 피해 방지시설 건설 및 생활 친화적 SOC 구축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 투자를 지속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건설업계로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국내의 침체된 건설 수요를 대신하여 북한 SOC 시설 건설에 국내 업체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건설업계에서는 공공공사 입찰제도가 또다시 화두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최저가낙찰제의 적용 확대 및 적격심사제 개선, 그리고 턴키 방식을 줄이고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늘리는 문제 등 현안들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 최저가낙찰제 300억 → 100원억 확대 유보시 국회 지시에 따라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의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협회도 현행 입·낙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을 통해 수행 중이므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저가낙찰제 및 적격심사제도 개선 방향의 큰 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의 가격 삭감 위주 발주 방식에서 시설물의 품질·안전·유지 관리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진국형 발주 방식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 금액에 따른 획일적인 입·낙찰 방식을 탈피하여 발주기관이 공사 특성에 맞는 발주 방식을 선택, 책임 운용토록 하여 발주 성과 및 시행착오 노하우 축적을 통해 발주기관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관·산·학 합동으로 영국의 CE(Construction Excellence)와 같은 공공조달 혁신 기구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최저가낙찰제를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하자는 「국가계약법」 개정 의원

입법이 발의(2012. 11)되는 등 최저가낙찰제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을 고려할 때, 2014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종합평가낙찰제' 등 품질 위주의 발주 방식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 변별력 강화로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300억원 이상 현행 최저가낙찰제 구간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행 기술 중심 발주제도인 턴키(대안)·기술제안입찰제도의 개선은 공정한 경쟁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건설업체의 기술적 노하우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국토부에서 연구 중이므로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설업계의 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업계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기업의 윤리 경영 및 공생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를 연구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건설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언론을 통한 홍보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레고경진대회와 우수 건설시설 사진 전시회 및 건설 인재 채용 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 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건설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도 전개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에는 건단련 차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 협

약을 맺고 기업 및 단체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급여 끝전 기부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들을 추진하며, 대국민 소통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인 및 그 가족들에게 보내는 새해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희망찬 계사년(癸巳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건설인들이 땀같이 유연하면서도 용맹하고 강한 의지로 당당한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부동산시장도 하반기에는 살아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당선자가 일자리 확대를 통한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타 산업에 비해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가 큰 건설산업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인 여러분! 건설산업의 시련과 위기는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지난 60여 년 간 국토를 새롭게 창조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올려놓는 등 특유의 저력을 발휘해 왔듯이 우리 200만 건설인의 열정과 불굴의 도전정신이 이어진다면, 저는 건설산업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계사년 새해 건설인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사업이 번성하기를 기원합니다. CERIK

글 : 이형우 편집장